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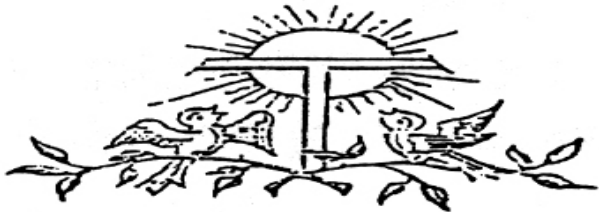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1호 2006년 1월 15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하느님의 선물인 일

회칙 제16조

회원은 노동을 하느님의 선물로 알고, 창조와
구원 업적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참여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회헌 제20조

2. 더욱 정의롭고 형제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의 기초적인 기여는 자신의 직업에 관계되는
일과 노동활동에서 오는 의무 수행에 힘쓰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봉사의 정신 속에 사회인
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목 67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 노동을 통하여 자신
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형제들과 결합
되고, 형제들에게 봉사하며, 또한 노동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동을 하느님께 바침
으로써 인간은 또한 옛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자렛에서 손수 일하심으로써 노동의 품위를
높여 주신 것이다. 여기서 충실히 노동해야 할
의무와 노동에 대한 권리가 각 사람에게
생기게 된다.”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서의 일의 의미

인간의 일은 또한 인간 사회의 복지와 발전에도
공헌한다. 인간 활동은 인간에게서 나오듯 인간
을 향하고 있다. 인간이 활동을 통하여 사물과
사회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완성해
나간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 능력을 기르며
자기를 벗어나 자신을 초월한다 (사목 35).

일은 인간 관계를 맺어 주고 연대성을 드러내
주며 서로 봉사하게 해준다. 일 나름이겠지만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일한다는 것은 연대성을
증진시키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그리고 일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므로 사람들을 결합시켜 준다. 이것이 일의
사회적 차원이다. 우리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되며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나의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 공동체
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프란치스칸 관점에서의 노동에 대한 인간학적 태도

성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칸 학파 안에서 노동에
관한 특수한 학설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노동과 관련된 특별한 태도를 볼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는 1221년 인준받지 않은
회규 제7장에서 봉사하며 일하는 자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은 노동 활동을
실현하는 자인 인간과 동떨어진 가치가 아니라
종교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모든 일은 부르심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정화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노스승이 말했다. "끈질긴 기도가
머지않아 정신을 향상시킨다."**

(금언집 1128)

교부들은 기도와 관련하여 많은 말을 하였다. 그들은 찬미의 기도를 노래로 부른다. 수도승들은 기도를 의무라기보다 하느님의 선물로 보았다. 기도는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상처들을 낫게 한다. 기도는 영혼을 숨쉬게 하고 정신을 정화시킨다. 또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바꾸어 준다.

우리의 언짢음이나 두려움, 질투심과 우울함을 물리 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도 중에 우리의 두려움, 언짢음, 그리고 슬픔을 하느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의 슬픔 속으로 내려가 그 바닥까지 제대로 간다면, 기도는 우리를 열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줄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울함, 괴로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처난 마음을 어루 만지시고 당신의 온화한 빛으로 우리 영혼 내부에 있는 심연을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흐려진다. 우리의 삶과 이웃들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불쾌한 감정이나 우리의 투사로 뿌옇게 된 안경을 통해서 바라본다. 기도 안에서 우리의 속상하고 언짢음을 하느님께 내맡기는 일이 이루어진다. 내 불쾌한 일을 하느님 앞에 가져가면, 나는 벌써 나 자신과 불쾌한 일 사이에 거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불쾌한 일 속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자비를 의식적으로 바라보면 불쾌함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

기도는 내가 자신을 되찾도록, 내 마음으로 되돌아가도록 도와준다. 만일 내 불쾌함 속에 고집스레 머물러 있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다. 곧 그에게 나를 지배할 힘을 부여한 것이다. 그에게 나를 좌우하도록 허락한 셈이다. 기도는 불쾌함의 힘을 빼앗고 나의 불쾌함 속에서 나를 지배하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다.

+ 평화와 선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새 일년이 하루처럼 지나 자취를 감추었군요. 그동안 저는 성령이 저를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하루 하루를 지냈어요.

그동안 보나벤투라 형제회를 위해서 여러 면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하느님을 뜨겁게 찬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영의 이끄심대로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새해에도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며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 안에서 덕을 쌓고 풍성한 열매를 저축하는 한해가 되시길 우리 형제회원 모두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프란치스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 드립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보나벤투라 형제회 봉사자
한기남 데레사 올림

기도는 정신을 정화시킨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을 증진시킨다. 불쾌한 감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종종 미움과 분노의 냄새가 난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상쾌한 향기를, 사랑과 평화의 향기를 풍긴다.

-사막을 통한 생명의 길/ 안젤름 그린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

힘 자라는 데까지

임께서 주신 힘 자라는 데까지

임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습니다

임이시여 저의 주님이시여

제게는 둘도 없는 희망이시여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임을 두고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임의 모습 찾고자 늘 몸달게 하소서

임을 두고 물을 힘을 주소서

임을 알아뵈게 하신 임이옵기에

갈수록 더욱 알아뵈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임이옵기에

임 앞에 제 강함이 있사오니

임 앞에 제 약함이 있사오니

강함은 지켜주소서

약함은 거들어주소서

임 앞에 제 앓이 있사오니

임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소서

임께서 닫아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 「삼위일체론」 15권 51항

미움도 괴롭고 사랑도 괴롭다

미워한다고 소중한 생명에 대하여

폭력을 쓰거나 괴롭히지 말며,

좋아한다고 너무 집착하여

결에 두고자 애쓰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증오와 원망이 생기나니

사랑과 미움을 다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너무 좋아할 것도 너무 싫어할 것도 없다.

너무 좋아해도 괴롭고, 너무 미워해도 괴롭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두 가지 분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높은 괴로움도 깊은 것을 좋아하는데서 오고,

병의 괴로움도 건강을 좋아하는데서 오며,

죽음 또한 삶을 좋아함,

죽 살고자 하는 집착에서 오고,

사랑의 아픔도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오고,

가난의 괴로움도

부유함을 좋아하는데서 오고,

이렇듯 모든 괴로움은

좋고 싫은 두 가지 분별로 인해 온다.

좋고 싫은 것만 없다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에 이른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돌처럼

무감각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인연따라 마음을 일으키고,

인연따라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집착만은 놓아야 한다.

이것이 인연은 받아 들이고 집착은 놓는

수행자의 걸림 없는 삶이다.

사랑도 미움도 놓아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 법정 스님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오늘 월례회때 월남에서 MD 홀리네임 관구에
와 계시는 Khoa 신부님께서 미사와 강론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 12월 20일 저녁 Holy Name College 수도원에
계시는 수사님과 신부님 20명께 저녁 대접을
하였습니다. 정수정 안나, 조은자 마리아,
이경숙 말가리다, 최경분 클라라, 김옥순
아가다, 한기남 데레사 자매께서 음식준비를
도와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순절 피정은 3월 26일 12:30부터 시작 하겠
습니다.

+ 월보에 글을 올리고 싶으신 분은 언제라도 참여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김베르나르디노 신부님께서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떠나신 김
신부님과 새로 오실 신부님을 위해 ...
김신부님 한국 연락처 011-8210-4789-
0643(휴대폰)

+ 지구형제회 총회가 3월25일 있습니다. 이날
차기 평의회원 선출에 이경숙 말가리다
자매님은 회계, 최경분 클라라 자매님은
부회장 후보자로 추천 되었습니다. 이날
총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지길 ...

+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집과 가진것 모두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



1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15 PM - 월례회
3:45 PM - 미사

✧ 미사 성가: 지침서 ✧

입당: 15번 주께 감사드리자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성체: 43번 주의 잔치
마침: 1번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신자들의 기도:
국발비나, 황순옥, 정수정, 곽종무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